

3. 경영형태 분포

2009년 국내 만화산업체의 경영형태는 창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, 기업인수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창업의 경우, 전년대비 0.5% 증가한 81.9%의 비중을 차지하였고, 기업인수는 전년대비 0.2% 증가한 11.6%의 비중을 차지하였다.

<표 3-1-6> 만화산업 경영형태 분포

(단위: %)

진출 경로 구분	2007년(N=226개)	2008년(N=380개)	2009년(N=351개)	전년대비 증감
창업	81.0	81.4	81.9	0.5
동업	0.4	-	-	-
가업계승	1.8	0.9	0.7	▽0.2
기업인수	11.1	11.4	11.6	0.2
전문경영인	3.1	3.0	3.0	-
기타	2.6	3.3	2.8	▽0.5
합계	100.0	100.0	100.0	-

<그림 3-1-4> 만화산업 경영형태 분포

(단위: %)

